

총무로에 사극이 몰려온다.
 '왕의 남자' '음란서생' 등의 흥행 성공 이후 뚜렷한 사극 영화가 등장하지 않았던 극장가에 다시 씨앗을 뿌린 건 지난해 개봉한 스틸러를 '공녀'였다. 올해는 다양한 소재와 함께 탄탄한 내공을 지닌 중견 감독들과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작품들이 속속 제작중이다.

스크린에 '사극' 봄바람

블록버스터 '신기전' '1724 기방 난동...' '쌍화점' '현의 노래'도 기대작

▲로켓 화포, 조선시대 건달 다양한 소재
 조선 시대 로켓 화포를 소재로 한 '신기전'은 1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다. 특히 이 작품은 어려운 국내 영화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제목 '신기전'은 세계 최초 다연발 로켓포와 장거리 미사일의 모태가 된 조선시대 로켓 화포를 말한다.
 부모상을 이끄는 상단의 우두머리이자 비범한 무예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한 남자가 조선을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명나라에 저항하고 화포 제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국운을 건 전쟁에 뛰어든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설주 역으로는 '바르게 살자' 등을 통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연기와 배우 정재영이 출연하며 탤런트 한은정이 영화 데뷔식을 치른다. '약속' '와일드 카드'에서 작가와 감독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유진 감독과 이만희 작가 콤비의 작품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정재·조인성 스타들의 귀환
 오는 5월 개봉 예정인 '1724 기방 난동 사건'은 '퓨전 사극'을 표방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주먹들이 명월향이라는 기방을 두고 벌이는 전대미문의 웃지 못할 사건을 그린 코미디 액션 사극이다.
 배경은 1724년 영조 즉위 직전의 마포 저잣거리지만 한복과 앙드레 김의 화려한 의상, 레계 머리와 상투가 어우러진 작품 속 주인공들은 시대를 초월한다. 천동봉거승이 같은 불한당 천동과 조선 광경 아육에 불타는 주먹 만득, 조선 최고

의 기생 설지가 주인공이다.
 '태풍' 이후 오랜만에 영화에 모습을 보인 이정재가 천동으로 출연하며 만득 역은 김석훈이 맡았다. 최근 박찬욱 감독의 신작 '박쥐'에 캐스팅돼 화제가 됐던 김옥빈이 설지역으로 출연한다.
 영화팬들의 기대치를 한층 받고 있는 작품은 '쌍화점'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를 통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유하 감독과 스타 조인성이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녀는 괴로워', '사랑' 등을 통해 총무로의 불무침으로 떠오른 주진모와 송지효가 가세했다.
 고려시대 말을 배경으로 왕과 꽃미남 호위무사, 왕비의 미모한 삼각 관계를 그리게 될 '쌍화점'은 왕과 호위무사의 동성에 코드 등이 눈길을 끈다.



1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 '신기전'

가야금을 만든 대가야의 우륵이 등장하는 김훈의 베스트셀러 '현의 노래'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 역시 기대되는 사극이다.
 '현의 노래'에는 '국민배우' 안성기가 출연하며 '동승'의 주경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세계적인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명성황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영화사 싸이더스 FNH에서 시나리오 작업중이다. '분홍신'의 김용균 감독이 명성황후와 호위무사의 사랑을 그린 '불꽃처럼 내비처럼'을 준비중이다. 또 '자객'은 정의의 무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객들을 해치우는 과정을 그린 액션물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앙드레 김이 의상디자인을 맡아 화제가 된 퓨전사극 '1724 기방 난동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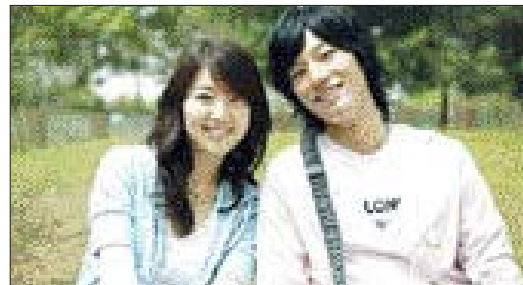
주목! 이영화 '허밍'

화이트 데이를 기념해 연인과 함께 로맨스 영화 한 편 보는 것은 어떨까.
 영화 '허밍'은 짧은 남녀의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을 강조하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로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등에 출연중인 한지혜와 이천희가 주연을 맡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연인을 마치

달콤 쌉쌀 풋풋한 사랑... 판타지 로맨스

막으로 만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를 가진 남자가 있고 있었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줄거리가 영화 '이프 온 리'와 비슷하다.
 해양연구원인 준서(이천희)는 오래된 연인인 미연(한지혜)의 한결같은 사랑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데...

준서는 미연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에 1년간의 남극연구원으로 자원한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미연은 남극에 가는 준서에게 무선통신기를 선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된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는 미연이 멀쩡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며 준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12세이상 관람가>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10,000 BC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아생과 문명의 충돌을 그린 선사 시대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스텝업 2 : 더 스트리트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춤 소재로 한 청춘영화. 스타일이 다른 남녀가 춤을 통해 교감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허밍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한지혜, 이천희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연을 쫓는 아이	콜롬버스(상무)
일어버린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 12세 이상 관람가.	
27번의 결혼 리허설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지겹도록 들리던 섀넌 그녀가 제법 찾기에 나선다. 15세 이상 관람가.	
마이 뉴 파트너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엔터
15년만에 돌아온 비리 형사 안성기와 열혈형사 조한선이 만났다. 15세 이상 관람가.	
집결호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죽지못해 시는 한 군인의 고통을 그린 전쟁 후일담. 12세 이상 관람가.	
마이 블루베리 나이트	롯데(철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왕가의 감독이 영미권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첫 번째 영화. 12세 이상 관람가.	
비보	롯데(철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긴급 만환을 원작으로 한 영화. 차태현, 한지혜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밴티지 포인트	롯데(철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엔터, 하이
8명의 시종으로 대통령 암살을 포획한 3명의 테러 사건을 재구성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워	롯데(광주)
동서양을 대표하는 액션 별이 이연걸과 제이슨 스톤이 만났다. 18세 이상 관람가.	
람보4 : 라스트 블러드	하이
20년 만에 돌아온 람보, 실버스타 스톤이 주연, 감독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데스노트 : 새로운 시작	메가박스
전편에 이어 최후의 23일동안 새로운 사신과의 대결을 그렸다. 15세 이상 관람가.	
추격자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네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스 광주 제일, 하이
푹과 푹이는 연쇄살인마와 전직 경찰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모름이 국내 최대 판타지 액션시

모름이 국내 최대 판타지 액션시

모름이 국내 최대 판타지 액션시

신속활장개편 일식요리의 명기 청하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대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

청하

223-7037 / 224-5002